

## 식탁에서 평화까지

: 식맹(食盲)을 넘어 식안(食眼)을 열다\*

이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국문요약

‘먹는 행위’와 ‘먹히는 음식’이 생명의 기본 원리를 구성한다. 이 글에서는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음식이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 및 먹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 자연철학적 차원에서 반성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음식의 지구화 과정에 담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서, 거대 자본이 지배하면서 농업과 먹거리가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실은 음식의 생산과정과 의미를 외면한 채 공장식 음식을 소비하는 데 머무는 ‘식맹(食盲)’의 결과이니, 음식의 자연적 원리와 사회적 의미에 대한 눈뜸, 즉 ‘식안(食眼)’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자 한다. 음식의 원리를 외면하거나 망각하고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과 먹는 행위에 담긴 생명 법칙의 실천이 있어야 종교도 종교가 된다는 사실을 우회적이고 함축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다.

주제어: 음식, 식맹(食盲), 식안(食眼), 식품 공정, 식량 소비, 유전자조작생명체(GMO), 푸드마일리지

\* 원고지 40매 분량의 에세이(이찬수, “کم맹을 넘었다, 식맹도 넘어라,” 『식탁의 영성』,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3, pp.14~26)를 80매 분량(“食盲の克服, 平和のはじめ,” 『hīā』, vol.8(京都: 文理閣, 2014), pp.106~125)으로 확대했다가, 논문 형태로 재구성·확장·보완한 글이다.

## I. 들어가는 말

인간은 먹어야 한다. 먹지 않고 살 길은 없다. ‘먹는 행위’와 ‘먹히는 음식’이 생명의 원리를 구성한다. 하지만 이들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탓인지, 음식의 원리, 음식을 먹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 현대인 상당수에게 음식은 그저 생활 습관이거나 건강을 위한 상품이거나 ‘웰빙’의 수단일 경우가 많다. 어떤 이에게 음식은 소비재일 뿐이고, 어떤 이에게는 이윤추구의 수단이며, 어떤 이에게는 심지어 무기도 된다. 어떤 이는 음식 때문에 행복해하고 어떤 이는 음식 때문에 불행해한다. 한쪽에서는 음식물이 남아돌아 쓰레기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음식이 없어 굶어 죽기도 한다. 폭력적일 만큼 불평등한 현실이 지속된다.

한반도에서도 그런 일은 전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반도 북쪽에서는 굶는 이들이 부지기수이고, 남쪽에는 남은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 연 1조원 가까운 돈을 쓴다. ‘음식물 쓰레기’라는 모순된 언어가 일상화되다시피 한 와중에도 가난에 시달리고 굶주리는 이들이 있다. 음식의 불평등은 지속되며, 음식의 원리에서부터 더 소외되어 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음식이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 및 먹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 자연철학적 차원에서 반성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음식의 지구화 과정에 담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의미, 거대 자본이 지배하면서 농업과 먹거리가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실은 음식의 생산과정과 의미를 외면한 채 공장식 음식을 소비하는 데 머무는 ‘식맹(食盲)’의 결과이니, 음식의 자연철학적 원리와 사회적 의미에 대한 눈뜸, 즉 ‘식안(食眼)’을 열어가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자 한다.

평화 자체를 깊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음식의 원리를 외면하거나 망각하고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과, 먹는 행위에서 드러나는 생명의 법칙에 부합하는 실천을 할 때에만 종교도 종교가 된다는 사실을 우회적이고 함축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다. 문장의 형식과 낱말 선택의 차원에서는 에세이에 가까운 글이기도 하지만, 식맹과 식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고 소개하기 위한 논문이기도 하다. 현대인이 자신의 생명의 근원인 음식에서부터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 염두에 두고 글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다.

## II. 밥 한 그릇에서 만사를 안다

동학(東學)의 2대 교조인 해월 최시형(海月 崔時亨, 1827~1898)의 법설 중에 “밥 한 그릇에서 만사를 안다(萬事知食一碗)”는 구절이 있다.<sup>1)</sup> 『해월신사법설』에는 ‘食’이라는 글자가 51회나 등장할 정도로 해월은 먹는 문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 인간의 먹는 행위에서 생활의 법칙, 우주의 이치를 발견했다는 뜻이다. 밥 한 그릇에 어떤 이치가 담겨있다는 말일까. 단순한 자연의 이치부터 다시 한 번 하나씩 따져보자.

밥 한 공기 that 식탁에 오르려면, 법씨가 있어야 하고, 하늘의 태양, 내리는 빗물, 부는 바람, 대지의 양분이 필요하며, 농부의 땀, 밥 짓는 이의 정성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 더 자세히 하나하나 따지고 분석하려면,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치 무수한 원인과 힘들이가 필요하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사람의 노력은 물론

1) 천도교중앙총부, 『해월신사법설』 중 「천지부모」 편.

이거니와 자연 전체, 전 우주가 모여 밥 한 공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만이 분명해진다. 밥 한 공기는 한 마디로 전 우주의 합작품이다.

밥 한 공기까지 갈 것도 없다. 쌀 한 톨도 그렇다. 근대 한국의 대표적 생명운동가라 할 수 있을 장일순(1928~1994)이 “나락 한 알 속의 우주”라는 글에서 밝히고 있듯이, 나락(벼) 한 알 속에 이미 우주가 들어있다.<sup>2)</sup> 사람의 눈에 따른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생명과 인간과 우주는 동일한 원리 속에 있다는 것이다. 동양사상에 회통(會通)한 목사 이현주가 “콩알 하나에 무엇이 들었을까?” 묻고, “하늘과 땅과 사람이 들어있다.”고 답하듯이<sup>3)</sup>, 쌀 한 톨, 콩알 하나에도 태양과 물과 바람과 땀, 그리고 수천, 수만 년 한결같이 버텨온 대지가 들어있다. 콩알 하나에 들어있는 씨눈 하나도 미시적 세계로 들어가 보면 헤아릴 수 없을 에너지들의 합작품이다. 그래서 콩알 하나, 나락 하나는 이미 우주적이다. 김지하의 다음과 같은 말에 담긴 의미도 똑같다.

밥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서로 함께 협동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풀·벌레·흙·공기·바람·눈·서리·천둥·햇빛과 법씨와 사람의 정신 및 육체적인 모든 일이 다 같이 협동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쌀이요 밥입니다.<sup>4)</sup>

이런 맥락에서 해월이 남긴 “밥 한 그릇에서 만사를 안다(萬事知食一碗)”는 법설의 의미가 깊게 와 닿는다. “하늘로 하늘을 먹는다(以天食天)”는, 즉 밥이라는 우주를 먹고 인간이라는 우주가 산다는 그의 다른 법설도 마땅하고 옳다.

2) 장일순,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개정판(서울: 녹색평론사, 2009)

3) 이현주 외, 『콩알 하나에 무엇이 들었을까』(서울: 봄나무, 2006), p.10.

4) 김지하, 『밥』(왜관: 분도출판사, 1984), p.61.

### III. 음식이 인간을 만든다

인간은 약 백조 개 가까운 세포들의 집적체이다. 이 세포들은 끝없이 소멸하고 생성된다. 십년 안에 인간의 모든 세포는 거의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 이 때 세포들의 순환에 필수적인 것은 에너지의 공급이다. 물, 산소, 음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유성과 상징성을 담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밥이 몸으로 들어오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열에너지로 바꾸어 생명을 유지하도록 온 몸 곳곳으로 보낸다. 밥이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인간이 밥을 먹고 산다는 것은 밥이 인간을 만든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밥이 인간 안에 받아들여지려면 세포들이 그것을 요구해야 한다. 세포들의 요구에 응하면서 들어온 밥이 ‘나’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허남혁이 서양의 속담(“I am what I eat”)을 인용해 지은 책 제목처럼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sup>5)</sup>이다. 철학자 메를로-퐁티(M. Merleau-Ponty)의 말처럼, 나는 몸의 선행적 주체가 아니라, 이미 세계 안에 던져져 그 원리에 따라 지각하고 경험하는 몸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몸”이다.<sup>6)</sup> 이 몸은 생물학적으로 음식에 의존한다. 나는 이미 몸 안에 있으되, 그 몸을 결정하는 것은 음식이다. 나는 내가 먹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이다.

물론 이것은 철학자들만의 독창적인 사유나 언어는 아니다. 김지하도 진작에 문학적으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어머니의 젖은 우주의 곡식이요, 곡식은 우주의 젖입니다. 우주의 젖과 우주의 곡식을 먹고 사는 사람

5) 허남혁,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서울: 책세상, 2008).

6) 모리스 메를로-퐁티, 류의근 옮김, 『지각의 현상학』(서울: 문학과지성사, 2002), p.307.

은 그래서 곧 우주인 것입니다. 우주를 먹고 사는 우주가 곧 사람입니다. 사람은 바로 그가 먹는 음식물입니다.”<sup>7)</sup>

인간의 생명 현상에 먹는 행위만큼 근본적인 것은 없다. 먹는 행위를 의미하는 ‘식(食)’은 뚜껍(人)과 그릇(良) 모양이 합쳐진 상형문자에서 비롯되었지만,<sup>8)</sup> 점차 ‘사람(人)을 좋게 함(良)’ 또는 ‘사람(人)이 좋아짐(良)’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밥을 먹는 행위만큼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은 또 없다. 먹음으로써 몸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니 마음이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먹는 일’, 즉 ‘식사(食事)’는 나를 나로 살아가게 하는 원초적인 일이다.

#### IV. 범씨도 인간을 먹는다

인간이 밥을 먹는다라는 말은 밥이 인간에 의해 먹힌다는 뜻이다. 그런데 과연 밥은 인간에 의해 먹히기만 하는 것일까. 쌀 한 톨은 인간에 의해 먹히는 수단일 뿐일까. 그렇지 않다. 관점을 바꾸어 쌀의 입장에서 보면 쌀이 인간을 먹는 것이기도 하다. 쌀이 우주를 먹는 것이기도 하다.

가령 사람은 죽어 한 줌 흙이 된다. 심장이 멎으면 혈액 순환이 중지되고 산소 공급이 끊어지면서 몸들의 유기적 순환이 느슨해진다. 단단하게 엮혀있던 세포들이 해체되어간다. 몸에서 수분이 빠져 나가고 분해되어 결국은 땅의 일부가 된다. 분해된 몸의 일부는 민들레 뿌리에 흡수되어 꽃잎으로 피어날 수도 있다. 범씨와 뿌리 안에 스며들어 낱알의 일부

7) 김지하, “콩나물 얘기 좀 합시다,” 『한살림의 협동을 말하다 I』(서울: 모심과살림연구소, 2013년 여름), p.10.

8) 하영삼, 『한자어원사전』(서울: 도서출판3, 2014), p.399.

가 될 수도 있다. 볍씨가 받아들이는 에너지 안에는 인간의 몸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땅이 되고 대기가 되고 물이 된 인간을 쌀이 다시 먹는 셈이다. 인간 편에서 보면 인간이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쌀의 입장에서 보면 쌀이 인간을 먹고 사는 셈이다. 쌀은 인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다시 인간을 에너지로 받아들여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해나간다. 인간의 몸이 쌀 한 톨이 되고, 여러 손길을 거쳐 밥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쌀도 인간을 먹는다.

어디 쌀 뿐이던가. 대지의 일부가 된 몸의 일부는 들풀의 에너지가 되고 벼의 뿌리로 들어가고, 벼짚은 다시 소가 먹는다. 들풀이든 벼짚이든 인간이 만든 사료든, 소도 무언가 먹고 물을 마시고 숨을 쉬면서 생명을 유지해나간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밥 한 공기가 그렇듯이, 그 유기적인 관계성에서 보면 소 역시 사람의 몸을 생존의 에너지로 삼는 셈이다. 쌀 한 톨 속에 죽은 조상의 몸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죽어 볍씨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소의 일부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먹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소도 사람을 먹는다. 생명은 무한한 순환 고리로 엮여 있다. 이것이 자연법칙이다.

## V. 이미 주어져 있다

얼핏 생각하면 밥은 사람이 만든 것 같다. 과자는 공장에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만든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볍씨 없이, 태양 없이, 빗물 없이, 대지 없이 농부가 밥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늘의 태양을 받고 빗물을 머금어 나온 밀 없이 과자가 생겨날 수 있을까.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치즈 없이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인간이 먹는 음식은 모두 ‘주어져 있던 것들’로 만들어졌다. 인간이 편안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모양을 바꾸는 등 가공을 줌 했을 뿐이다. 씨를 많이 심고 잘 가꿔서 좀 더 많이 생산할 수는 있지만, 쌀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쌀 비슷한 인공식품을 만든다 해도, 만들기 위한 재료 자체는 어딘가 어떤 형식으로든 주어져 있는 것들이다. 인간이 음식 재료 자체를 창조해낸 것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라고 얻어진 것을 외형만 살짝 가공했을 뿐이다. 다소 종교적인 용어를 쓰자면, 음식은 모두 주어진 ‘선물’이다.

기독교 성서에서는 신이 에덴동산을 만들고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창세기 2,9)”고 한다. 신이 먹기 좋은 열매를 만들었다는 말은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인간이 만들기도 전에, 먹을 음식이 먼저 주어져 있었다는 경험적 사실에 대한 신화적 혹은 신앙적 상상의 표현이다.

어찌 음식만 선물이겠는가. 제 아무리 산해진미가 내 앞에 쌓여있어도 그것을 먹고 소화할 수 있을 능력이 없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음식이라는 것도 내가 먹을 수 있을 때에야 음식이다. 다시 말해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조차 주어졌다는 뜻이다. 음식을 소화시키는 능력도 인간이 창조해낸 것이 아니다. 내가 위장을 만들고 심장을 뛰게 하고 대장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그렇게 움직이면서 영양분을 소화 흡수하도록 태어난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원리 안에 ‘던져진’ 것이다.

하이데거(M. Heidegger)가 인간을 “세계-내-존재(In-der-Welt-Sein)”로 규정한 것도 세계 ‘안’에 던져진 인간의 실상을 통찰했기 때문이다. 이 때 세계는 인간을 둘러싼 배경이거나 인간에 의해 관찰되는 한 객체가 아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해주는 근원적 구조이다. 인간은 언제나 세계 ‘내



존재(內存在)로 현존한다.<sup>9)</sup> 세계는 인간에 선행하며, 이미 그렇게 주어져 있다. 이 ‘내존재성(內存在性)’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다.

이와 비슷한 논리로 인간은 음식 안에 던져졌고, 음식 속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음식은 생명의 출발이자 수단이고, 모든 이의 생명의 근원이다. 음식을 생산하기 위해 인간이 땀을 흘리기는 해도, 음식은 땀 흘리기 이전부터 주어져있던 것들이다. 누군가에 의해 독점될 수 없는 원초적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수는 음식을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지상 목적처럼 간주하는 자세를 경계하며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마태복음 4,4, 누가복음 4,4 신명기 8,3)” 이러한 본연의 모습을 통찰하고서 음식의 선행적 원리에 어울리도록 겸손하게 살 수 있다면, 그곳이 종교적인 언어로 정토(淨土)이고 불국토(佛國土)이며 극락(極樂)이자 신국(神國)이다.

## VI. 음식이 마을을 만든다

음식의 원리, 먹는 행위는 마을을 형성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근간이기도 하다. 여행작가 권삼윤에 의하면, 유목민들이 음식(고기, 우유, 빵 등)을 얻고자 목초지를 찾아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 ‘길’이 만들어진 데 비해, 물이 많은 지역에서 쌀을 먹으며 살던 밥 문화권에서는 정주 생활을 하다 보니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sup>10)</sup> 음식이 사회적 형태의 기초를

<sup>9)</sup> 마르틴 하이데거, 전양범 옮김, 『존재와 시간』(서울: 시간과공간사, 1992), pp.88-89.

<sup>10)</sup> 권삼윤, 『빵은 길을 만들고 밥은 마을을 만든다』(서울: 이가서, 2007).

구성해왔다는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도 이러한 원리를 분명하게 의식한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저 이론으로 남겨두지 않고 음식의 원리를 구체화시키려 했다. 그는 마을 회의를 통해 경제와 정치의 권력을 분산하고 자치를 통해 자족적인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다. 농사로 마을을 살리고,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음식과 옷과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세계의 희망은 자발적, 자치적, 자족적 평화적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 달려있다고 보았다.<sup>11)</sup> 이러한 공동체의 핵심에 있는 것은 음식이다. 음식을 함께 생산해 나누어 먹는 것이 건강한 사회, 공동체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김지하의 알려진 말도 결국 같은 차원이다.

밥이란, 본래 공동체적으로 만들고 공동체적으로 거두고 공동체적으로 나누어 먹고 공동체적으로 굶판을 벌이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놀고 다시금 공동체적으로 더욱 신나게 밥을 만드는, 그러한 생명의 집단적이고 통일적인 순환활동·전환활동·확장활동의 상징이다.<sup>12)</sup>

음식이 어찌 길과 마을만 만들 뿐이겠는가. 사회와 공동체의 핵심이기만 하겠는가. 전술한 표현을 다시 가져오면, 음식은 생명의 근원이고 힘이며, 음식의 원리는 생명의 원리이다. 농경학자 프레이저(Evan D. G. Fraser)는 음식의 문명사 차원에서 이렇게 규정한다. “식품은 부(富)이다. 식품은 예술이고 종교이며 정부이고 전쟁이다. 그리고 영향력을 갖는 모든 것이다.”<sup>13)</sup>

11) 마하트마 간디, 김태연 옮김,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서울: 녹색평론사, 2011) 서문 참조.

12) 김지하, 『밥』(왜관: 분도출판사, 1984), pp.60-61.

13) 에번 D. G. 프레이저 외, 『음식의 제국』(서울: RHK, 2012), p.9.

생명의 원리인 음식이 생명을 죽이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음식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순간, 음식의 생산과 유통 과정 등에 욕망과 재물의 논리가 개입되는 순간, 음식은 독이 될 수 있다. 음식이 인간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음식과 인간의 사회·정치적 관계가 왜곡될 때, 이 모든 질서는 어그러진다. 인간이 더 비참해지기도 한다. 실제로 지구상에는 그 불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최소한의 수단조차 없어서 삶이 위협받는 빈곤한 이들이 많다. 그들에게는 음식이 그 자체로 목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도 실현하기 간단하지 않은 목적이다. 그럴 때 그런 목적을 어느 정도 실현하며 사는 이라면, 굶주리는 이가 음식을 지상과제로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 혹은 정치적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른바 복지가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본래 음식을 먹고 살도록 태어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이와 관련하여 간디는 이렇게 말한다.

인도와 세계의 경제구조가 누구도 음식과 의복이 없어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일거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상은 오직 생활의 기본적인 필수품 생산수단이 대중의 통제 하에 있을 때에만 보편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신이 주신 공기와 물이 그렇듯이, 또 그러해야 하듯이 모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 그것들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기 위한 거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나라나 민족 또는 집단이 그것을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단순한 원칙의 무시가 우리가 오늘날 이 불행한 땅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곳들에서도 보게 되는 빈곤의 원인이다.<sup>14)</sup>

14) 마하트마 간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pp.18~19.

## VII. 생명을 조작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실은 반대로 흘러간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정작 그 음식의 원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현대인들 상당수는 음식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모른 채 그저 소비하기만 한다. 자연 법칙 또는 생명 원리는 성찰하지 못한 채 음식을 그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물질로 생각한다. 음식 소비자는 적은 돈으로 많은 음식을 사려 하고, 음식 생산자는 적은 돈으로 많은 음식을 팔려 한다.

이런 두 가지 욕망이 만나서 음식의 대량생산 체제가 이루어진다. 음식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려면 음식을 표준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원료가 되는 농축산물도 균일해진다. 식물 종자의 다양성도 급격히 사라져간다. 생산성이 높은 감자, 큰 옥수수, 달콤한 토마토를 생산하는 종자만 살아남고,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진화해온 토종 종자들은 사라진다. 생산하는 데 돈이 많이 들거나 판매해도 이윤이 적기 때문이다. 전 세계인이 비슷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음식의 지구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음식이 무기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음식을 돈으로 치환하기 위해 논밭에서, 목장에서, 공장에서 적은 돈으로 많이 생산하기 위한 각종 ‘조작’이 가해진다.

겉보기에 파릇파릇한 채소도 실상은 유해하게 키워지는 경우가 많다. 속성·대량 재배를 위해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비료와 농약이 사용된다. 식물의 종자 자체를 유전적으로 조작하기도 한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조작생명체)가 식탁을 점령한 지 오래되었다. 가령 한국에서는 2002년에 GM 옥수수(NK603)가 식용으로 승인되었고, 2011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소비되는 식용 GM 옥수수의 비율이 49%에 이른다.

게다가 사료용으로 도입된 GM 옥수수의 종자가 운송 과정에 유출되어 한반도 곳곳에서 자라면서 자연산 옥수수로 둔갑되는 경우도 이미 여러 군데이다. 2009년도에는 GMO(주로 옥수수, 그리고 면화, 유채 등)가 전국 26곳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sup>15)</sup>

큰 문제는 GM 식품이 생명체에 끼치는 유해성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다각도로 연구되어 있으니, 이 글에서 더 소개하거나 논할 일은 아닐 것이다.<sup>16)</sup> 물론 GM 옥수수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문제는 이것이 대체로 권력과 이해관계에 얽힌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당장은 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수억 년 이상 진화해온 유전적 질서를 강력한 제초제를 견디면서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단박에 조작해낸 식물이 과연 얼마나 유기적 생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물론 대량생산된 GM식품이 가난한 국가와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부족한 영양분을 비교적 간단하게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만만찮다. 하지만 그것은 생산된 GM식품이 가난하고 굶주리는 자에게 고루 공급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주장이다. 윤리학자 피터 싱어(Peter Singer)는 이러한 주장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제약업체가 말라리아 치료보다 대머리 치료에 더 관심이 있듯(왜냐하면 말라리아에 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며 백신을 살 형편이 못되기 때문이다), GM 식품을 개발하는 업계 역시 자기네 제품을 구입할 능력이 되는 선진국 국민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다. 예를 들어 제초제 내성 곡물은 제초제를 살포할 능력이 되는 농민에게나 의미가 있다. …… GM 곡물은 개발도상

15) 김훈기, “GMO 논란, 드러난 것과 감춰진 것,” 『모심과 살림』 제1호(서울: 모심과살림연구소, 2013년 여름), pp.193~198.

16) 대강의 흐름은 김훈기, 위의 글 참조.

국에서 그만큼 성공하지 못했다. 이상할 것 없다. 그 GM 곡물들이 개발도상국 농민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sup>17)</sup>

기업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GM 곡물의 긍정적 가능성도 현실화될 수 없다. '공정무역'도 전문기술자의 영역으로 들어가 플랜테이션(농산기업)이 되는 순간 풀뿌리 개혁적 운동이라는 본래적 의미는 퇴색된다.<sup>18)</sup> 농업에 미치는 거대 자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농민과 소비자 사이의 상호 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 운동인 '로컬푸드' 운동도 거대 유통업이 개입하면 그저 거리만 가까운 데서 생산된 음식에 머물고 만다.

이러한 구조는 음식이 자본화하는 곳에서는 비슷한 양상으로 활성화된다. 곡물이나 채소에게 적용되는 방식이 동물에게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가령 초식동물인 소에게 항생제, 근육 강화제는 물론 동물 사체가 섞인 사료를 먹이는 일도 다반사이다.<sup>19)</sup> 속성으로 체중을 키워 더 많이 팔기 위해서이다. 소는 자연 상태에서 5년여 성장한 뒤 25년 정도를 살지만, 실제로는 각종 성장촉진제로 인해 1년 안에 '성장되고' 3년 이내에, 짧게는 14개월 이내에 상품 가치가 되면 '도축 당한다'. 수유 기간이 긴 젖소는 거의 평생을 우리에게 간혀 강제 임신과 출산을 반복당하면서 오로지 젖을 생산하다가 임신이 불가능한 시기가 오면 도축된다.

자연 수명이 14~15년 정도인 돼지는 5~6개월 정도면 삶을 마감하고, 자연 수명이 20년을 넘는 닭의 실제 수명은 3개월 미만이다. 오로지 인간이 만든 사료를 먹고 알을 생산하고 고기로 키워지기 위해 A4 종이 한 장만도 못한 공간 안에 간혀 산다.

어디선가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virus)가 발병했다 싶으면, 주

17) 피터 싱어·짐 메이슨, 함규진 옮김, 『죽음의 밥상』(서울: 산책자, 2008), p.304.

18) 에번 D. G. 프레이저 외, 『음식의 제국』, pp.366~368 참조.

19) 피터 싱어 외, 『죽음의 밥상』, pp.96~97 참조.

변에 있는 멸절된 수백만 마리의 닭과 오리 등이 하다못해 ‘아파볼 권리’조차 가지지 못한 채 생매장 형식으로 살처분된다. 한국에서는 2003년 528만 5000마리, 2008년 1020만 4000마리, 2010년 647만 7000마리가 발병하지도 않았는데 살처분 당했다. 2014년 2월 6일 현재 실제로 AI에 감염된 가금류는 121마리뿐인데도, AI의 확산을 예방한다며 3월 24일까지 모두 1,157만 4천 마리의 멸절된 닭과 오리가 산 채로 땅속에 매장되었다. 그 뒤 통계는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이유 없이 죽어간 가축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다.

짐승을 도축하는 도축 과정의 반생명적 폭력은 더 말해 무엇하랴. 이 모든 일들은 생산자나 소비자나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 논리에만 따르다 보니 벌어지는 반생명적 조작의 사례들이다. 음식을 이윤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생명 현상을 돈으로 치환하려는 폭력적 욕망에서 반생명적 조작이 가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음식 속에 얼마나 많은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역으로 음식의 사회적 생명성을 회복해내야 하는 개인적 행동과 국가적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돌아보게 해준다.

## VIII. 현대인은 ‘식맹’이다

그 뿐이던가. 먹거리는 생명과 생존의 핵심이지만, 정작 인간은 자신의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 먹을 새도 없이 지내거나, 만들어 먹을 줄도 모른다. 겨우 라면이나 끓여먹을 뿐, 밥을 직접 해먹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표준화된 거대 식품 기업의 상품을 그저 구입해서 먹는다. 간장, 고추장, 된장을 사다 먹은 지 오래되었다. 썩, 개망초, 냉이, 돌나물, 미나

리, 고사리를 알지 못하고, 상추와 고추, 피망, 토마토를 심어 키워본 적도 없다. 가공된 햄을 사다 프라이팬에 튀기는 일이 요리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문명의 모순, 현대인의 불행이 여기에 있다.

나아가 음식의 유통과정, 즉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이 어디서 온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가까운 데서 온 먹거리는 유통과정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 한다. 그만큼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데 일조한다. 반대로 먼 데서 온 먹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 그만큼 지구온난화를 촉진한다. 그렇다면 친환경적 농법에 기반을 둔 지역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것이 당연한데도 거의 전 세계에서 온 먹거리가 현대인의 식탁을 채우게 되는 이유는 사실상 '돈' 때문이다. 적은 돈으로 많이 생산하려는 생산자와 적은 돈으로 많이 소비하려는 소비자의 욕구가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푸드마일리지’(Food Mileage)도 더 진지하게 생각할 때이다. 1994년 영국의 환경운동가 팀 랭(Tim Lang)이 처음 제안했다는 푸드마일리지는 “식품이 농장에서 소비자까지 이동해온 거리와 그 중량을 곱한 값”을 의미한다고 한다. “중량이 많이 나가는 식품을 장거리 수송하면 그 값이 높아지게 된다. 비슷한 중량일 경우 수송 거리가 멀면 푸드마일리지가 커진다. 예를 들어 비슷한 크기의 캘리포니아 오렌지와 제주도의 감귤을 비교해보면 오렌지의 푸드마일리지가 상당히 크다. 푸드마일리지를 알게 되면 수송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을 쉽게 계산할 수 있고,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도 비교적 쉽게 파악해볼 수 있다.”<sup>20)</sup> 나아가 운송거리가 긴 식품일수록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살충제나 방부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음식의 안정성도 급격히 떨어진다.

20)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모심과살림연구소, 『밥상의 전환』(서울: 한티재, 2013), pp.141~142.



한국의 일인당 푸드마일리지는 2010년 기준으로 7,085톤킬로미터라고 한다.<sup>21)</sup> 이것은 당시 조사대상국들인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문제는 다른 나라는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은 각종 FTA 체결 이후 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다.<sup>22)</sup> 한국인의 식탁을 수입 식품이 점령했고, 그만큼 한국인이 지구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늘리고 지구온난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00GT 정도라고 한다. 19세기 말 이래로 이산화탄소 1,900GT와 여타의 온실가스 1,000GT가 이미 배출되었고, 207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지 않으면 지구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sup>23)</sup> 가능한 한 푸드마일리지가 적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잘 보여주는 수치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요청에서 아직 거리가 한참 멀다. 먹거리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더 익숙하다. 먹거리를 자본으로 치환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이른바 '싸고 좋은' 먹거리를 찾으려는 모순된 욕망이 지배하는 사이, 인간은 점점 더 음식의 진정성에서부터 소외된다. 음식의 우주성, 은총성, 생명성, 독점불능성과 같은, 전술했던 음식의 원리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현대인은 '식맹(食盲)' 속으로 더욱 더 빠져들어 간다. 슬로우푸드 운동가인 김종덕이 음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음식에 대해 감사할 줄도 모르며 사는 사람들을 '음식 문맹자'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sup>24)</sup>

21) 2012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른 수치이다.

22) 김정수, "한국인 밥상, 더 멀어진 '신토불이,'" 『한겨레신문』, 2012년 5월 16일.

23) <<http://theguardian.com/environment/2014/nov/19/co2-emissions-zero-by-2070-prevent-climate-disaster-un>>

24) 김종덕, 『먹을거리 위기와 로컬 푸드』(서울: 이후, 2010), p.24, p.334.

이 글에서는 그것을 줄여 ‘식맹’(食盲)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현대인의 상당수는 식맹(食盲)이다. ‘문맹’이나 ‘컴맹’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평생 먹고 사는 음식물 하나 제대로 생산해보지도 못하고, 요리조차 제대로 못한다. 음식이 어떻게 해서 내 앞에 오게 되었는지 잘 모르고, 음식의 정체에 대해서도 눈감는다. 식탁 위 먹거리에 담긴 수많은 폭력들과 폭력적 구조에 대해 무지할 뿐더러 의식적으로 외면한다. 감사해하는 마음은 별로 없이, 남이 해놓은 것,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을 그저 먹기만 한다. 그것이 식맹의 전형적인 자세이다.

## IX.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

요사이의 태엽시계가 거의 사라졌다. 모든 이가 태엽시계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태엽시계가 돌아가는 원리는 조금만 상상해보면 알 수 있는 자연적인 것이었다. 태양이 움직이는 정도를 톱니바퀴로 잘게 쪼개 표현한 것이 태엽시계였으니 말이다. 모든 사람이 자전거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자전거가 움직이는 원리를 알 수 있고 자전거를 직접 탈 수도 있다.

하지만 문명이 고도로 기계화하고 산업 기반이 디지털 세계로 진입하면서 인간이 만든 문명은 인간의 상식을 떠났다. 현대인은 디지털 세계의 원리를 잘 모르면서 스마트폰을 그저 신기해하며 주어진 방법대로 사용하기만 한다. 돌아가는 원리는 잘 모른 채 첨단 비행기와 자동차를 소비하고 누리기만 한다. 에너지의 절반 가까이를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에 사용하며 ‘속도의 사회’로 치닫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반 일리히(Ivan Illich, 1926~2002)는 문명의 유지를 위한 척도로 ‘자전거’라는 상징성을 제시한다. 자전거는 보통의 인간이라

면 이해할 수 있는 원리와 구조로 되어 있다. 정교한 자동차는 인간 이해의 수준을 넘어섰지만, 자전거는 인간이 육체를 이용한 만큼만 움직인다. 인간에 의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인간이 편의를 위해 만든 문명이면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상징적 발명품이다. 인간의 행복은 속도와 소비의 대명사인 자동차가 아니라, 원제(Energy and Equity, 1974)와 다르게 한국어 번역판에 붙은 제목이기는 하지만,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는 것이다.<sup>25)</sup> 문명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연에 어울리도록 절제할 수 있을 정도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문명은 인간의 창작품이라면서도 인간은 정작 자신의 창작품을 제어할 능력이 거의 없다. 문명은 문명의 법칙에 인간이 종속될 때에만 효용성을 드러낸다. 게다가 현대 문명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만이 해당 부분만 겨우 손볼 수 있는 정도로 전문화되어 있다. 각 분야로 세분화하고 전문화된 지식은 말 그대로 전문인의 것이지 모든 이의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이 쓰는 세련된 물건이 어떻게 해서 자신 앞에 왔는지 잘 모른다. 인간이 문명의 창조자인 것 같지만, 실상은 문명이 자기의식을 가지고 인간을 종속시켜가는 거대한 힘으로 확대되는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이다. 음식은 문명의 근간이다. “모든 도시는 잉여 식량의 생산과 교환이라는 토대 위에 존재해왔다.”<sup>26)</sup> 하지만 인간은 자신들이 음식을 교환하며 형성해온 문명에 대해 사실상 주인이 아니다. 도리어 인간은 “식량의 노예”로 전락했다.<sup>27)</sup> 인간은 자신이 먹는 무수한 완성품 먹거리들이 어떻게 식탁에 오르게 되었는지, 대형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고기상품이 어떻게 우리 앞에 오게 되었는지 잘 모르거나 외면한

25) 이반 일리치, 박홍규 옮김,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서울: 미토, 2004).

26) 에번 D. G. 프레이저 외, 『음식의 제국』, p.9.

27) 에번 D. G. 프레이저 외, 위의 책, p.11.

다. ‘값싸고 질좋은 음식’을 얻으려는 모순적이고 폭력적인 욕망이 벼, 채소, 고기, 우유 등 음식의 재료를 ‘조작’하게 만든다. 대형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위해 얼마나 많은 소가 공장식 축사에서 반생명적으로 키워지고 소비되는가. 공장식 축사에서 음식 공장에서 생산된 것 중에 ‘값싸고 좋은 것’이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이 모순된 욕망의 조합이자, 폭력적 인식이다. 가령 대형 마트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하려면 공급자에게 싸게 납품할 것을 요구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공급자는 단가를 맞추기 위해 다시 더 싼 원료와 생산 방법을 찾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물건은 반생명적 생산과 유통 체제를 강화시켜나간다. 피터 싱어는 미국 월마트의 사례를 들어가며 이렇게 비판한다. “그러한 싼 가격 뒤에 납세자들, 지역사회민들, 동물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담이 숨어있다. 그것은 월마트의 낮은 가격이 갖는 명백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월마트에서 음식을 사먹는 일이 상당한 윤리적 문제를 갖게 되는 이유다.”<sup>28)</sup> 이런 식으로 ‘싸고 좋은’ 물건에 대한 욕망 속에는 누군가를 직·간접적으로 희생시킨 폭력이 들어있다. 이제 “생명체를 싼 값에 얻겠다는 생각이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가 되었다.”<sup>29)</sup>

## X. ‘식맹(食盲)’을 넘어선다.

인류가 ‘문맹’의 정도는 상당 부분 넘어서고 있지만, 자본 중심의 논리에 휩싸일수록 생명의 근간인 음식에 대해서는 ‘식맹’이 되어가고 있다. 현대인은 음식물의 생산과정은 모른 채 소비하기만 한다. 먹거리에 대해

<sup>28)</sup> 피터 싱어 외, 『죽음의 밥상』, p.122.

<sup>29)</sup> 고미송, 『채식주의를 넘어서』(서울: 푸른사상, 2011), p.20.

성찰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먹거리는 생명과 생존의 핵심이지만, 정작 인간은 자신이 먹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을 새도 없이 지낸다. 자신에게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체성이 있는 양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음식의 진정성에서부터 인간은 소외되어 있다.

물론 개인들이 의도적으로 식맹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니다. 현대 문명 자체가 빈곤의 해결, 식생활 수준의 향상을 추구하는 과정에 형성되어 온 것이라는 점에서 '식맹'의 상황은 사실상 인류 문명의 발전과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다. '식맹'의 상태를 개인들의 도덕적 성찰과 결단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근본적으로는 음식마저 자본으로 치환시키는 자본주의의 문제이기도 하고, 법치화된 문명 자체에 내장된 문제이기도 하다. 먹거리 관련 정책의 혁명적 전환도 요청되지만, 정책적 요청 주체가 독재적·독자적으로 정책을 시도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몇 가지 정책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과 그 음식을 먹는 행위에 대한 인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성찰적인 실천이 없이는 식맹 상황이 극복되지 않는다. 이반 일리히의 표현을 빌려오면, 그가 한결같이 주장하듯이, 인간이 사회에 의해 '타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실에서부터 '자율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나갈 때 '식맹'은 극복되어간다. 대다수 인간이 현대문명에 휘둘리고, 문명을 제작하고 좌우하는 소수에게 다수가 종속되어 살아가는 현실을 전복시켜, 근본적 독점 구조를 깨고 다수가 자율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식맹에 처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인식하는 데서 세상은 바뀌기 시작한다. 울리히 벡(Ulrich Beck)이 '소비자' 의식만이 전능하다시피 한 기업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듯이,<sup>30)</sup> 자본화한 음식의 권력도 그 음식 소비자들이 생산자 의식을 지니고서 음식의 원리에 어울리도록 조

절할 수 있을 때 약해져간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물을 섭취해 소화시키는 기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연의 원리 차원에서는 쌀 한 톨도 내 몸도 모두 우주의 합작품이자 유기적인 생명 고리로 얽혀 있음을 반성하고서, 먹는 이와 먹히는 것의 건강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는 음식을 자본으로 치환시키고 무기로 삼는 자본주의의 속도를 늦추고 구조를 전환시키려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식명은 극복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식량 생산 체계를 알아야 하고 식량과 자신의 관계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음식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살리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박재일(1938~2010)이 ‘한살림운동’을 시작해 오늘날과 같은 도농(都農) 간 상생적이고 생태적인 ‘밥상운동’을 선도할 수 있었던 것도 생산자와 소비자 간 공생을 위한 고민 때문이었다. 박재일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음식의 원리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 현실성을 부여해준다.

시장에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공산품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는 모두 팔고 사는 관계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경제적인 관계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상반됩니다. 소비자는 보다 싸게 사려 하고 생산자는 보다 비싸게 팔려고 합니다. 결국 둘 중 하나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대립 관계가 한참 가면 어떻게 하든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밥상을 살리는 일이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로는 불가능합니다. 소비자의 밥상살림과 농업살림은 둘로 나뉘진 대립 관계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즉,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관점에서 출발했을 때 필요한 것을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

30) 올리히 벡, 홍찬숙 옮김, 『세계화 시대의 권력과 대항권력』(서울: 길, 2011), p.33.

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농산물 직거래 운동, 도농 간 삶의 연대, 공동체 운동 등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같이 모여서 생산자는 밥상을 살리고 생태계를 살리고 땅도 살리는 생명의 농업, 즉 유기농업 운동을 해나가고, 소비자는 그 운동이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소비를 책임짐으로써 농업도 지키고 건강한 밥상도 지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밥상살림과 농업살림을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sup>31)</sup>

농부로 하여금 생태적 음식을 생산하게 하는 상대자는 음식 소비자이다. 음식 소비자는 그저 소비자이기만 하지 않고 사실상 간접적 생산자이기도 하다. 농업의 대가로 음식 소비자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한다.”<sup>32)</sup>는 박재일의 표어는 현실적 울림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김종덕이 윈델 베리(Wendell Berry)의 말을 인용해 요약하듯이, 소비자의 “식사는 농업 행위다.”<sup>33)</sup>

나아가 생태적 원리에 어울리게 생산된 음식은 마찬가지로 생태적 원리에 맞게 소비되어야 한다. 특히 음식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좋다. 공장 음식을 돈으로 바꾸어 소비하는 형태에 머물지 말고 소비자가 직접 조리해 먹을 줄 알 때 음식의 생명성은 확보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생명의 원리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길이다. 그리고 배고픈 이에게는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음식의 사회성이 확보되며, 그럴 때 ‘식맹’을 극복하는 것이다.

31) 박재일,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 『한살림의 협동을 말하다 I』(서울: 모심과살림 연구소, 2013), p.148.

32) 박재일, 위의 글, p.150.

33) 김종덕, 『먹을거리 위기와 로컬 푸드』, p.337.

## XI. ‘식안(食眼)’을 열어간다

식량을 경제논리로만 접근하고 심지어 무기화하는 흐름은 우려스럽다. 누군가 물이나 산소를 무기화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는가. 음식은 무기가 아니다. 생명의 원리이다. 설령 다른 물질문명은 놓치더라도, 생명의 원리를 느껴가며 음식을 직접 생산할 줄 알고 요리할 줄도 알아야 한다. 건강한 생산자와 교류해야 건강한 먹거리가 나오고,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조리해먹을 줄 알 때 생명의 근원을 성찰하고 그 원리대로 사는 최소한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식안(食眼)’을 열어가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유럽사회의 수직적 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꾸어간 주체 세력을 ‘시민(부르주아)’이라고 한다면, 식사의 원리에 관한 한 현대인은 ‘시민’이 아니다. 공장식 대량 생산의 원리에 종속된 ‘노예’들이다. 스스로 노예에서 벗어나 ‘음식시민’이 되어야 한다.<sup>34)</sup> 가족이 집에서 더 많이 식사해야 하고, 가능한 모든 이가 조리법을 배우고, 가정과 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음식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값싸고 질 좋은 음식’을 대량 생산한다는 모순된 욕망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이 그렇듯이, 생명의 고귀함과 유기적 연결성에 어울리는 음식의 원리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시대의 종교 혹은 신앙은 교회당에서 종교 의례를 하는 데에만 핵심이 있지 않다. 친환경 농법에 애쓰는 이, 힘들게 일부러 ‘슬로우푸드’를 만들어 먹는 이, 일부러 ‘채식’하고 나아가 ‘소식’을 하는 이 모두 요즘 시대에 어울리는 일종의 ‘종교적’ 실천이다. 식맹 시대의 성스러움은 일종의 ‘음식 의례’를 통해 구체화된다. 푸드마일리지, 슬로우푸드, 채식과 소

<sup>34)</sup> 김종덕, 위의 책, pp.334~335.



식 등은 음식을 먹는 일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콘텐츠이다. 식명의 시대에는 종교도 생명의 근원에 대해 성찰하고, 먹거리의 정치·경제성을 의식하며, 먹음의 행위론적 의미를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좀 더 느리게 가면서 먹거리를 나누며 사는 곳에서 종교는 생명력을 얻는다. ‘식안(食眼)’을 열어가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평화롭고 풍요롭게 음식을 먹는 데 머물지 않는다. 음식을 먹고 살되, 문명과 문제의 핵심인 음식의 원리에 대한 통찰 위에서 그 원리에 어울리게 사는 것이다. 음식의 생물학적, 정치적, 경제적, 자연적 원리에 대한 통찰, 다시 말해 먹는 행위와 먹히는 음식의 관계와 의미에 대한 눈뜸이 ‘식안’이다.

음식이 무기가 되고, 이윤추구의 수단이 되며,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음식이 없어 굶어죽는 상황에서 평화라는 말은 공허하다. 먹는 행위에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서 어떻게 인간다워질 수 있을 것인가. 정책으로 평화를 이루려 시도한다면, 무엇보다 음식의 원리에 충실해야 하며, 먹음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식안을 열어가야 하는 것이다.

‘식안’을 열어가는 일은 종교적 눈이 열리는 과정과 다른 것이 아니다. 깨달았느냐 아니냐는 식안이 열렸느냐 아니냐와 다르지 않다. 음식에 대한 인식, 먹는 행위를 보면 인간성도 보이고, 종교성도 보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상황도 보인다. 아무리 번듯해 보이는 종교적 사제라도 먹음의 불평등에 둔감하다면 털 깨달았다는 증거일 수 있다.

식안은 그저 개인의 만족과 행복에 머물지 않는다. 개인의 식안이 열리면 사회적이고 정책적으로도 모든 식사가 인간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 일체 생명체가 생명의 원리에 부합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운동에도 나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음식으로 인간을 억압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폭력도 줄어들거나 사라져갈 것이다.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

는 일이 발생할 리 만무할 것이다. 가난하더라도 나눌 줄 아는 자세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식사는 인간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이고 자연적이고 인간적이고 우주적인 행위이다.

■ 접수: 2014년 11월 17일 / 심사 : 2014년 11월 24일 / 게재확정: 2014년 11월 28일

## 【참고문헌】

### 국문단행본

- 고미송. 『채식주의를 넘어서』. 서울: 푸른사상, 2011.
- 권삼윤. 『빵은 길을 만들고 밥은 마을을 만든다』. 서울: 이가서, 2007.
- 김종덕. 『먹을거리 위기와 로컬 푸드』. 서울: 이후, 2010.
- 김지하. 『밥』. 왜관: 분도출판사, 1984.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모심과살림연구소. 『밥상의 전환』. 서울: 한티재, 2013.
- 이현주 외. 『콩알 하나에 무엇이 들었을까』. 서울: 봄나무, 2006.
- 장일순.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개정판. 서울: 녹색평론사, 2009.
- 천도교중앙총부. 『해월신사법설』.
- 하영삼. 『한자어원사전』. 서울: 도서출판3, 2014.
- 허남혁.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 서울: 책세상, 2008.
- Berry, Wendell, 이한중 옮김. 『온 삶을 먹다』. 서울: 낮은산, 2011.
- Fraser, Evan D. G. 외. 유영훈 옮김. 『음식의 제국』. 서울: RHK, 2012.
- Gandhi, M. 김태연 옮김.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서울: 녹색평론사, 2011.
- Heidegger, M. 전양범 옮김. 『존재와 시간』. 서울: 시간과공간사, 1992.
- Illich, Ivan. 박홍규 옮김.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 서울: 미토, 2004.
- Merleau-Ponty, M. 류익근 옮김. 『지각의 현상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2.
- Singer, Peter 외. 함규진 옮김. 『죽음의 밥상』. 서울: 산책자, 2008.

### 국문논문

- 김지하. “콩나물 얘기 좀 합시다.” 『한살림의 협동을 말하다 I』. 서울: 모심과살림연구소, 2013년 여름.
- 김훈기. “GMO 논란, 드러난 것과 감춰진 것.” 『모심과 살림』 제1호. 서울: 모심과살림연구소, 2013년 여름.
- 박재일.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 『한살림의 협동을 말하다 I』. 서울: 모심과살림연구소, 2013년 여름.

### 인터넷 자료

- (<http://theguardian.com/environment/2014/nov/19/co2-emissions-zero-by-2070-prevent-climate-disaster-un>)

## From A Dining Table to Peace: Overcoming Food-blindness To Awaken Food-sight

Yi, Chan-Su (IPUS,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act of eating' and the 'food being eaten' constitute the basic principle of life. This paper will reflectively discuss where food comes from, the processes that food must undergo before it can be served, and finally what it means to eat at the dimension of natural philosophy. This paper considers the political and economic meanings of food to critically examine how huge capital has globally dominated the food industry, and how food has become used as a means of profitability.

People have a tendency, called as 'food-blindness', to ignore the processes of food production and in doing so, the true meaning of eating. Instead, they buy and consume food mechanically.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people glow their ability to see the natural and societal values of food, called as 'food-sight'. This paper also asserts true peace is unattainable if the principle of food is ignored or forgotten, and the act of eating must be followed by the practice of living for religious purposes.

Keywords: food, food-blindness, food-sight, food processes, food consumption, GMO, food mileage

**이찬수(Yi, Chan-Su)** .....

서강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종교학과에서 교토학파의 불교철학과 칼 라너의 신학을 비교하며 박사학위를 받았다. 강남대 교수, (일본)WCRP평화연구소 객원연구원 등을 지냈고, 현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종교로 세계 읽기』, 『일본정신』,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공저), 『녹색평화란 무엇인가』(공저) 외 다수의 책을 썼다.